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醫學

Dentistry in Desert (砂漠의 齒科施術)

作者 A. Locher 1888年作品

A. Locher는 1880년대 초 Bomboy에서 Constantinopole에 이르는 대상을 따라 여행을 한후 1888년에 발간된 "별과 초승달과 더불어" 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그림은 그의 저서속에 있는 그림으로서 몇구루인가 종려 나무가 있고 망망 무대의 사막속에 일어난 한가지 사실을 담고 있다.

멀리 두사람의 여행자는 이제 갈길의 방향을 찾고 세사람의 현지인이 한사람을 누여 놓고 막대기 같은 것으로 입을 다물게하고 찌개로 받치

하는 장면을 묘사 하고 있다. 행하는 술식을 보아서는 하악 전치 받치 장면 같다.

그러나 나머지 두사람의 환자 고정인 머리쪽이 아니라 팔과 두다리를 결터 앉은것을 보아서 복부에 무엇인가 시술을 하던지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 같다. 고통을 참는 환자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같이 떠난 여행자를 살려서 같이 돌아 갈려는 의지가 보이는 보기도 든 삽화이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 城 合 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253) 3411 · (255) 3024